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定價 新聞一個月先金 金壹圓 廣告料 五號活字每一行 金壹圓 特別指定料 每一行 金壹圓伍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滿洲朝鮮人의 歸化問題

一

朝鮮人問題의 一大分派를 지은 것은 滿洲朝鮮人의 前途如何이다 數量上으로 地理의 接近된 點으로 또는 中國官民과의 複雜한 關係가 거듭하야 생기는 點으로 朝鮮內國을 除하고 거의 第一位의 重大問題가 되어잇다 그 重大한 이만큼 世間의 人士들의 注目을 끌어서 이미 그 一般의 情勢를 짐작하는 바임으로 煩瑣한 說明이 無用할 일이다 다만 最近間島和龍縣一帶에서는 土地所有權移動手續問題와 關聯하야 朝鮮人의 歸化를 强制하게 되엇고 一面으로 日本의 國籍으로부터 脫離하야 中國에 歸化할 必要가 잇는 것을 勸誘하야 歸化與否로 利害의 다름이 잇슴을 보힐뿐아니라 歸化의 妨害者는 嚴罰에 附하는 等 積極的 手段을 講하는 모양이다 吾人은 일즉 在滿同胞의 中國歸化가 그 當面한 難境을 벗어나는 一方策일것을 말하엿거니와 이제 이 問題에 對하야 內外在留同胞의 考慮를 促하려한다

二

차다리 鷄林의 개가 될지언정 너의 나라의 臣이 되지 아니하겟노라고 한 排他殘他的 愛國心은 오늘날와서 이미 昔年事가 되엇다 오즉 人格의 權威가 보전되고 生活의 自由가 確立할 수 잇는 곳에는 天下에 이르니 그 市民이 될 수 잇는 것이오 天下의 田野를 함께 耕作함을 어들 것이다 鄕土人과의 關係가 圓滿히 갈 수 잇다하면 그는 勿論 아무 倫理的 支障이 잇슬 수 업는 일이다 이 點으로 보아서 吾人은 항상 滿洲朝鮮人의 中國歸化로써 그의 生活保障의 一方策을 삼기를 從迺하엿든 바이다 그는 中國의 領土內에 들어가 그의 法度下에 살게 되는 朝鮮人으로서 여로 如何키 어려운 問題이다 만 비록 中國에 歸化한다 할지라도 다 다만 自來의 事情에 돌아보아 차라리 斷行할 必要가 잇는 것이 왼 中國에 歸化함으로 因하야 困難을 免할 길이 잇다 할진대 그는 日本의 國籍을 維持하게 되는 때 지는 二重國籍으로 因한 겹지 안은 苦痛이 그의 將來를 煩苛케 함이 매우 만흘 것이니 이는 世間의 識者가 항상 躊躇한 바이오 今後에도 考慮를 要하는 問題이다

三

土地所有의 禁止는 일즉 緩和되지 못하엿고 商租의 禁止도 아즉 持續하는 中이다 昨冬張郭의 戰爭中에 日本人이 어떠한 交換條件으로 利權을 獲得함이 잇섯슬는지 알 길 업스나 朝鮮人의 土地商租禁止는 依然히 勵行되는 바이오 오즉 歸化한 者에 限하야 이를 許與하는 方針인즉 滿洲朝鮮人問題는 歸化이냐 아니냐? 가 우선 解決의 열쇠를 잡고 잇다 할 것이다 中國은 政情이 安定되지 못하엿고 匪徒의 橫行이 자못 甚하며 軍警과 및 官吏輩의 侵凌이 酷하며, 司法과 一般行政等이 자못 紊亂하지 안은 者 만흐니 歸化가 곳 生活의 改善을 가져옴이라고 할 수는 업스나 우선 生活의 基礎를 맨들기 爲하야는 歸化로써 시작할 밧게 업슬 것이다 和龍縣一境에서 一時一萬人內外의 同胞가 中國에 歸化하게 되엇고 手續費와 農友會費等 約四萬五千圓의 負擔이 잇게 된다는 것은 매우 沈痛한 國民的 一大悲劇이지마는 吾人은 차라리 歸化가 一方策될을 되푸리하여 말한다

四

米合衆國과 勞農露國은 모다 異民族을 包括하야 큼을 이룬 者이오 中國도 그 中의 한아이다 그 外에도 異民族을 包容하야 一個의 國家를 形成한 者는 매우 만타 現下의 帝國主義列國은 모다 異民族統御에 煩悶하는 者이오 舊奧地利帝國과 帝政露國은 異民族統御에 失敗한 나라이엇스며 『발칸』諸國은 지금外지 錯綜한 民族關係로써 非常한 苦悶中에 잇는 터이다 中國에 歸化하는 朝鮮人이 米合衆國에 歸化하는 白色國民과 가티 될는지 或은 또 『뿔칸』의 諸民族과 가튼 軋轢의 씨를 뿌림이 될는지는 速히 預斷할 수 업스나 多數의 集團的 移住民인 朝鮮人으로 우선 生活의 切迫을 緩和코저 大擧하야 中國에 歸化케 하는 것은 매우 緊要한 時下의 一懸案이 되는 것이다 最善이 업는 곳에는 次善도 또한 可할 것이다

廿萬名으로 勞農軍組織

六個大隊로分하야 獨逸新聞一齊報道

(스트다스불그九日發) 獨逸各新聞은 勞農政府는 今也人員二十萬인 六個大隊로 某外國人勞農軍人團을 組織하엿다고 報道하엿더라

李景林北京急行

王懷慶軍과衝突事件으로

(天津八日發) 李景林은 舊部下와 王懷慶軍과의 衝突된 事件에 對하야 其善後策을 講究코자 張學良과 同行으로 八日午後五時에 北京에 急行하얏다더라

露大使權限擴張

商業上書類에署名可能

(東京電) 露國大使館으로부터 外務省에 通告한 바에 依하면 露國大使館의 「알렉산드로위치」, 「즈이그리」 外五名은 露國通商代表의 名義로 取引을 行하며 且右取引에 基하야 契約證書及其他商業上書類에 署名하는 權限을 附與하엿다더라

旅券查證廢止

日米兩國間에商議成立

(東京電) 日米兩國間交通의 便利를 圖코저 今回兩國政府間에 旅券查證廢止의 相議가 成立되야 正式으로 公文을 交換하엿다 即旅券查證免除의 範圍는 左와 如하다

一、要務又는觀光의目的으로一時的旅行者로써入國하는者
二、繼續的으로相對國의領土를通過하야他外國에赴하는者
三、商人으로商業에從事키爲하야入國하는者
四、兩國中他一國의一地方으로부터接續地를通過하야다시其國領土에入하는者

若槻總理를筆頭로 大官輩一齊取調

松島事件逐日擴大

(大阪電) 松島事件에 對하야 床次政友本黨總裁를 證人으로 訊問한 結果 다시 高見之通氏의 關係로 本黨의 總務와 會計方面及若槻首相、川崎內務次官 其他某參與官等도 一齊取調키로 決定되야 角南豫審判事는 豫定과 가티 數日內로 東京에 向할터이라더라

憲本提携 具體化實現?

研究會의幹旋

(東京電) 井上鐵相、小笠原伯은 八日私邸로 濱口藏相을 訪問하고 憲本提携의 持續其他政局에 就하야 提言懇談하얏는바 研究會의 幹旋으로 憲本提携는 具體化하게될터이라더라

官吏優遇其他

幹事會成案承認

(東京電) 八日의 行政調査會幹事總會에서는 官吏關係諸制度改善에 關한 小幹事會의 成案을 審議한 結果

一、官吏의優遇에關한事項
一、官等制度의基本에關한事項
一、奏任各官의最高官等에關한事項
一、官職名의整理에關한事項
一、判任文官의俸給에關한事項

等에 對하야 小幹事會의 成案을 成案으로 承認하엿더라

商工業爲하야 商工支省設置

◇…關西方面에

(東京電) 商工省의 一部에는 所管事項의 簡便、能率增進、商工業者에 對한 接觸連絡의 敏活을 期하기 爲하야 關西方面에 本省의 支省或은 出張所와 如한 것을 設置할 計劃으로 目下研究中인대 特히 大阪은 商工業의 中心地로 全國十二輸出組合重要輸出品工業組合中의 八個所가 關西에 잇고 米國과 如한 것은 十五個所의 支省을 設置하야 良好한 成績을 擧하는 實例도 잇슴으로 一方商業會議所와 其他가 希望한 터이나 日本과 如히 國土가 狹隘한 곳에서는 그만한 必要가 잇는가 업는가 하는 點에 問題가 잇는데 此가 具體化하기外지에는 일우지 못하얏스나 利害關係에 對하야 目下研究中이더라

百餘人夫賃銀을 沒吞逃走한須藤

畢竟全州署에就縛 須藤은東洋水組請負業者

全北東津水利工事場에서 請負業하는 兒玉柚五郞은 同工場에서 砂利採集하는 實任者로 須藤多代治라 하는 日本人에게 請負를 주어 砂利採取에 着手中 賃銀會計는 十日二十日三十日의 三回에 定하고 工場實任者兒玉柚五郞은 直接前記須藤에게로 須藤은 人夫에게로 支拂키로 되야 去六月三十日會計時에 前記須藤은 人夫에게 支拂할 賃金三百三十圓을 兒玉事務所에서 領受한 後 三十日間苦役한 人夫百餘名에게는 一分도 不給하고 逃亡하야 全州日丸旅館에 留宿한 것을 全州警察署에 逮捕取調中인데 三百三十圓中消費하고 百三十圓밧게 餘存이 無한 바 須藤手下에서 砂利採取하든 人夫들은 賃金바들 餘地가 全無하다 하며 前記須藤은 또 同工場內商店에도 物品外上이 一千八百圓可量이나 되야 各商店과 人夫들은 如干狼狽가 아닌데 責任者兒玉柚五郞은 말하기를 自己도 日人이지만 日人을 信用키 難하다 하얏다더라(泰仁)

固城少年會發起

慶南固城에서는 于今外지 少年團體가 업는 것을 무엇보담도 큰 遺憾으로 생각하든 바 메少年의 熱誠으로 同發起會를 去五日本社支局에서 組織하고 會員集募에 努力한 結果 來十八日固城靑年會館에서 創立大會를 開催할터이라더라(固城)

定例局長會議

總督府에서는 九日午後零時半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定例局部長會議를 開催하고 齋藤總督、湯淺政務總監以下各局長及關係事務官이 出席하야 豫算其他一般政務에 對하야 協議한 後 三時四十分散會

鐵道網期成運動

(東京電) 朝鮮鐵道網期成同盟會發會式은 十二日에 擧行되엇는바 會長으로 井上準之助氏의 就任承諾을 엇기 爲하야 此를 十七日에 延期하엿스며 又名譽會長으로는 澁澤子爵을 推戴키로 하야 本部를 東京에 支部를 京城에 두게되엿더라

三五會緊急會

七月六日春川商業組合事務室에서 會員十五名外十日會會員도 參席하야 會長崔燦浩氏司會로 左記各項을 決議하엿다고

△決議
一、京春間自働車賃金五圓引下의陳情書提出件
一、在住民에게도自働車經營의件
一、委員池奎禹金泳模氏十日會當日에參加하야彼我人合同으로賃金引下陳情書에同志를確知의件
一、牛市場所指定設置方針의件
(春川)

實業教育講習會

本月二十日부터 忠淸南道主催로 實業教育講習會를 忠南燕岐郡鳥致院公立農業補習學校內에서 五日間開催키로 되야 同校에서는 其準備에 奔忙中이라는바 出席할 會員은 同道內에 散在한 鮮日人訓導로 二百名以上三百名에 達하리라 하며 出席員의 便宜를 圖키 爲하야 左와 如히 旅館을 指定하엿다더라

朝鮮旅館 軍松旅館 永成旅館 丸屋旅館 明治旅館 (鳥致院)

鳥致院農校生募集

忠南燕岐郡鳥致院公立農業學校는 今年春에 新設되야 鳥致院의 公普通學校基地內에 校舍를 建築中이든 바 不日內로 落成될 豫定이며 開學은 九月一日에 될 듯하고 生徒募集試驗은 本月十五日에 行하기로 되야 本月十日外지 入學志願을 受理키로 되엇든 바 八日外지 入學志願者가 二十人에 不過함으로 十四日外지 入學志願受理를 延期하기로 하엿다는대 募集生의 定員은 五十名이라더라(鳥致院)

在京金浦學生 夏期實行事業

巡講、討論、庭球

在京金浦學生親睦會에서는 去四日臨時總會를 開하고 今番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左記事業을 實行하기로 決定하엿다더라

△實行事業
一、夏期巡廻講演及演劇大會開催의件
七月下旬頃에 金浦郡內各重要處에서 巡廻講演及演劇大會를 開催할 것
演士 池相集 閔瑽基 崔鍾護 閔寅植 閔玉仁 趙鳳昭 魚秀振 宋柄爽 李河昌
二、討論會開催의件
八月中旬에 郡內暑羅里에서 地方有志諸氏와 聯合討論會를 開할 것 (可便演士 崔鍾護 閔聖基 林壽福 閔玉仁)
三、全金浦庭球大會開催의件
八月初旬頃에 金浦邑內에서 鄕里有志諸氏와 學生間의 對抗庭球戰을 開催할 것 (學生側選手 金永萬 趙允九 金在萬 李甲龍 盧孝麟 沈斗燮 沈貴賢 趙鳳昭 宋柄爽 權寧禧 金東春 趙鳳來 宋榮□ 諸氏)

東明少年夏講開催

慶北迎日郡大松面湲內東明少年會에서는 去七日同會館에서 執行委員會를 열고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고

△決議
一、總會召集의件(日字來二十日) 一、園遊會開催의件 一、夏期會員講座開催의件(課目은 朝鮮地理歷史와 外에 數種) (浦項)

船橋里市場移轉

去六日부터新場所

平壤府外船橋里의 市場은 場所가 一定한 바 업서 從來六個場所에 散在하야 場의 中心이 失하엿슴으로 市場이 如斯하여서는 同里의 發展을 促進치 못하겟다는 理由로 市場設立者와 其他里民有志諸氏의 決議로 船橋里中央地에 市場을 新設하고 去六日即同里의 市場인 陰曆五月二十七日場에는 前記中央에 集會하엿는바 其間에는 自我에 直接影響되는 里民도 잇서 一時不平을 吐한 일外지 잇섯스나 決局圓滿히 解決되고 從此로 新設市場에서 開場된다더라(平壤)

間島實狀映畫

間島明東學校後援會主催의 間島實狀映畫會는 新高山支局及本社新高山支局의 後援下에 本月六日下午八時부터 新高山靑年會館內에서 上映한 바 當日義捐한 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며 一行은 安邊邑으로 出發하엿다더라(新高山)

金三圓 李大用 金二圓 金達榮 李鍾夏 金一圓 崔鼓演 宋光浩 元世熙 金五十錢 蕭泰龍 洪範 永女史

固城普校員講習會

慶南固城郡敎育會에서는 今般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同郡全普通學校敎員으로 固城公立普通學校內에서 講演會를 開催하고 來二十八日부터 八月一日外지 四日間 『千葉師範附屬主事手塚岸衛』를 招聘하야 自由敎育에 關한 講習會를 開催할터이라고(固城)

夏期兒童聖經學校

黃海道에 今教會主日學校協議會決議로 全道를 通하야 長淵、載寧二區에 講習會를 開催케 되엇는데 爲先一區載寧에서 如左히 開催된다더라

會場 載寧邑西部教會堂
申込 安岳信川鳳山載寧四郡
講師 韓錫源牧師
時日 本月十二日부터 十四日夕外지 (載寧)

清亭市自働車開通

京義線雲田은 鐵道附近이며 따라 穀物의 豊產地方임으로 市況은 日日發展되야 交通上何等의 不便이 업스나 北으로 三里를 隔하야 五六百餘戶를 가진 清亭市는 往來朝鮮에 有名한 鍮器名產地로 年年其輸出額이 數百萬圓에 達하야 半島에 名聲이 藉藉한 곳이나 오직 山間僻地에 在하야 一般商業上交通이 不便하든 바 今番定州自働車商會에서 地方發展의 目的으로 道當局에 交涉하여 오든 結果 去五月二十四日附로 許可를 得하야 其間道路修繕에 着手하야 去七日에 修繕을 完了하고 來十日부터 開通되리라는데 區域과 賃金은 如左하다더라

區域	賃金
雲田清亭間	九十錢
定州清亭間	一圓二十錢

(雲田)

第四回湖南庭球

本社成平支局主催인 第四回湖南朝鮮少年庭球大會는 本月三十一日八月一日兩日間開催하리라는데 詳細는 追後發表한다더라(成平)

兩郡聯合夏講

慶山郡에서는 慶山清道兩郡教育會聯合主催로 左記事項에 依하야 夏季講習會를 開催한다더라

△開催日字及入會方法
一、日時 八月二十七八九三日間(每日午前八時半至午後三時半)
一、場所 慶山公立普通學校
一、申請所 慶山郡教育會慶山普通學校內夏季講習會係로
一、申請期日 八月十日外지
一、入會資格 教育關係者로함
一、入會費金 一圓(但慶山清道郡教育會員不要)
△講師及講習科目
一、講師 東京成城中學校教諭 伊藤準
一、科目
一、講技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教諭講師 石丸一磨 (慶山)

栗浦里老少奔波

海中에藥泉이낫다고

全南寶城郡會泉面栗浦里途路邊海中에 奇異한 藥泉이 發見되엇다는데 潮水의 川入에 따라 藥泉에 되엇다가 潮海로 化하얏다 하는 바 科學上其成分은 分析치 못하엿스나 每日數百人의 男女는 爭하야 藥水를 먹으며 또는 沐浴한다는데 드른 바에 依하면 부스럼病이든지 一心으로 祈願하면 神奇한 效果를 엇는다고(寶城)

舒川衡平分社臨總

忠南舒川邑內衡平分社에서는 去七日同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記各項을 決議하얏다고(舒川)

△決議
一、夜學部新建築은 前會館敷地로 할일 二、費用은 一個月間牛肉商權을 專權으로 二人이 引受할것 三、各分社로부터 中本部에 七圓式經費에 對하야 七月中에 送金할일 四、本部內學友會에 十圓을 送金하되 七月中에 送金하기로 할일 五、團結하야 運動에 妨害者는 本社로 報告할일

馬山精米業者에게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筆者는 去月中旬頃의 各新聞上으로 馬山에 不正精米業者가 現出한 것을 알게 되자 同時에 我不淨의 吐說로 「이것은 正業者全般의 羞恥이외다 누구던지 現在馬山의 精米業者도 外는 雜米를 混合販賣한다」는 말도 그 時에야 비로소 알게되엇다

◇新聞記事의 報道를 보면 例의 關係된 間諜人物 그 自身도 도리허 罪過를 뉘우치지 안코 新聞記者에 對한 怨說을 濫發한다 한다 그럼으로 나는 君等을 可憎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직 그 淺薄한 所爲를 冷笑하고 만다

◇그러나 例의 不正精米業者 金□周가 만일 아닌 대로 되이 것이 事實이라 하면 그것은 勿論이오 人道上到底히 容認할 수 업는 大罪人이라고 할 수 잇다

◇君等이 아모리 資本主義에 醉하야 詐欺陷穽的 性이 骨髓에外지 徹하얏슬지라도 穀物의 外지 消費도 不拘하고 多大數의 사람을 良心의 淸米를 混合하야 欺瞞하야 暖衣飽食코자 하는 그 心思可히 불상하다 하겟다

◇그러나 君等아! 君等이 그와 가튼 不正한 手段에 弄絡되는 사람은 特히 엇던 階級인 것을 아는가! 그것은 筆者가 말할 必要도 업시 한 되 두 되式 賣買하는 사람은 太半貧民階級이니 君等이 아모리 守錢奴의 根性을 가젓슬지라도 그와 가티 敗的行爲를 取하는 것은 — 消費者에게 詐欺界에 만흔 影響이 잇슬 것은 馬山業界에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制度의 現狀에 잇서서는 商業이란 것이 正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울」의 財源이란 것은 潮流에 들어가 보면 그 商業에 「不正」이란 덩어리로 形成된 것임으로 自己의 良心을 속이지 안코 各人各人의 關니 狡持할 수 업는 것이나 그러나 君等萬若金□을 것가트면 남은 姑捨하고 다도 君等各商自身도 利롭지 못한 出하야 不遇의 深淵에 빠질 것을 豫想할지어다 筆者는 把捉지 못하야 速이 君等의 反省을 促進하고 擱筆한다(黑生)

裡里市民對衡平 言爭問題解決

去七日代表會議結果

去月廿八日裡里에서 衡平員對市民糾紛問題로 其對策을 講究키 爲하야 去一日市民大會外지 召集하엿다가 警察의 解放을 當하얏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其後에도 幾次의 集會가 有하얏스나 亦是何等의 解決이 無하야 裡里社會에서는 一大問題로 事態가 漸漸險惡하든 바 去七日에 다시 大會를 召集하라던 中 또한 警察의 干涉으로 不得已代表七十餘人만이 同午後八時에 同署練武場에서 開會케 되자 同署門前에 雲集하엿든 群衆은 入場을 强請함으로 當局에서도 不得已同署構內外지 入來를 許한 後 金仁炯氏司會로 益山衡平分社에 對하야 爲先同社代表三人以上이 現場에 出頭謝罪를 밧기로 하고 同社에 交涉한 바 同社代表趙聖煥 成明仲 趙明旭 三氏가 出席하야 左記條件付로 出頭謝罪를 하고 即席에서 警官立會下에 署名捺印하엿다 하며 被害者前記崔寅塞은 其間告訴를 提起하야 加害者趙介童外七人은 現今拘留中이라더라

△謝罪條件
一、新聞紙上東亞、時代、朝鮮日報에 우리의 作成한 謝罪文을 公布할 事
一、被害者崔寅塞에게 治療費及損害全部를 益山衡平分社에서 辦出할 事
一、萬一被害者가 被傷에 因하야 死亡하는 時는 被害者家族의 請求되는 慰藉料를 益山衡平分社가 그 遺族에게 辦給할 事
一、以上第一條件은 本月十日以內로 實行할 事 以下畧(裡里)

●群山勞靑委員會 集會禁止의 關係로 오래동안 延期되얏든 群山勞働者靑年會第十回執行委員會는 去七日午後九時同會館內에 開催되야 臨時執行部全崎煥氏의 司

鳥致院商報發行에

出捐金多數

忠南燕岐郡鳥致院은 忠淸南北道中央에 位置한 都市로 朝鮮人經濟는 日로 月로 破滅되어가는 바 其復興策이 渺然하야 商業家의 一大宿恨이든 바 數月前에 有志의 發起로 商權을 挽回하자는 趣旨下에 鳥致院商業研究會를 組織한 後 商權을 發揮하는 同時에 商業界의 知識을 啓發코저 月報를 發行하기로 原稿를 集合하는 反面에 出版許可願外지 當局에 提出하엿다는데 月報發行費에 補充키 爲하야 會員中으로부터 義捐金을 爭出하야 數百金에 達하엿다는데 其出捐者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

△義捐人士
金炳奭 朴其守 河爾明各十圓 林鍾鎬 金成會各六圓 朴容德 韓壽永 黃奎熙各五圓 吳德成 金仁成 姚東吉各四圓 金在際 金光濟 金順化 李鳳龍 劉相烈 羅用 李長成 高俊明 申興均 李棋榮 姚善澤 金成淑各三圓 李廷奎 李春根 金文達 李秉勳 孫魯城 金肯培 姜秉烈 許璉 李鳳三 尹性云 韓重七 金萬五 朴商圭 張文善 李他宮 金在根 南敬祐 延秉九 姚基煥 朴憲浩 洪鍾韶 卞鍾韶 洪在岩各二圓 李英龍 金元達 金祥圭 林憲圭 崔德奉 柳東俊 趙興西 李泰根 韓在天 李道天 柳基元 崔順五 趙東熙 李仁永各一圓 張世昌 朴明俊 趙伊連各五十錢 元商武 會旗一幅及二圓(鳥致院)

選講獎勵抽籤

咸南文川郡農會에서 春繭共同販賣時에 選講獎勵抽籤券을 發附하얏던 바 去二日을 期하야 抽籤한 後 同三日에 發表하얏다는데 等級及賞品은 如左하며 當選總人員은 一千五十九人이라더라

△賞品
一等金五十圓一人 二等金三十圓二人 三等金十圓三人 四等金五圓八人 五等金二圓十五人 六等金一圓三十八人 七等五十八人 八等一百五十人 九等八百人

光東校盛運

寄付募集完成

平北宣川郡群山面長公洞光東學校는 距今二十年前에 設立되야 洞民有志의 不斷한 努力으로 敎育機關으로서의 遜色이 업시 多數한 英才를 養成하야 敎界의 貢獻이 多大하든 바 同校當局者는 좀더 完全한 敎育機關을 完成코자 昨年七月分에 道當局으로 寄附金募集許可를 得하야 金贊德 宋日煥 金元明 崔文玉 諸氏는 風雨를 不避하고 熱誠募集한 結果 所要額의 募集을 畢하고 今後로는 諸般工事의 着手하리라는 바 寄附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다고

△寄附芳名
田洛浩 金沃女史 張聖初 張聖龜各五十圓 金昌坤 金成龍 朴元祚 朴根 黃朴晨秉 朴元吉 李萬石 桂昌楠 宋日煥各三十圓 閔蓮洙女史 朴興永 朴尙玉 田文瀾 許熙善 李泰永 金應 李寅昇 無名氏 李基淳各二十圓 各十五圓 金錫旭 李文錫 金弘若 金尙健 金柄湖 金濬樑 池長潤 崔封先 世烈 金來李 熙迪 金基鳴 韓正奎 戴湖 李學淳 李龍煥 金致元 朴炳汶 李成贊 李昌翰 金昌郁 李昌錫 白雲行 朴春官 吳秉殷 金殷稷 白孝俊 宋金陸 前會 崔昌朝 卓昌洲 朴有爵 朴在魯 李鍾運 桂根芳 三面金鏞事務所 金炳模 李興 金重鎬 金鶴濟 崔大淸 金龍濟 車麒贊 吳桓 龍許璉 李得化 李昌信 李淮斗 金寅鏞 金景熙 南金鳳溶 許渠 訥渠 聖浩 張利初 李安德明 高集鳳 淚成號 崔文玉 金永成斗 沈昌希 金成鎬 金信文 朴德一各十圓 李宗宋 八圓 金鳳錫 田秉敬 金敬治 張時亨 崔錫祜 金七圓 李孝俊 車金豊 金鳳瀾 田俶敬 車仁範 車昌珍 車珍浩 朴榮芳 金炳奭 金炳斗
金治彥 桂瑞鎬 桂熙徹 林基昌 朴明緒 桂孝觀 金時壯 金應彬 鉉濟 德基 桂亭 一玉文孫 桂炳寬 李得晦 魯元燁 田承洪 桂錫禎 金錫泰 田得明 車得鍋 田永祚 桂徹 桂熙爵 林寬采 □濟明 朴鶴來 無名氏 玄聖默 朱寶則 金致雁 李贊弘 金永河 安時弘 洪致榮 魯串瑋 李鳳春 桂俊三 金炳健 金熙綽 申興寬 吳鏞源 金成德 張承基 成張文珍 金萬欽 金泰哉 趙鍾淵 朴治島 車益龍 金興文 吳泰封 張成斗 尹炯善 司柯特 金仁燐 金日萊 申仁宅 白雲武 無名氏 洪文稷 金庚文 車炳朝 田央淳 金載獻 金貞均 金致遠 金鳳翼 金鳳赫 李鍾星 李文奎 金顯周 權龍日 沈廷河 池章漢 朴昌均 桂奐集 吳鏞振 金昌麟 金秉鉉 金雲興 朴性默 桂洛淳 田燦得 朴元模 會得麟 全學明 姜淵杓 李讓承 金鏞國 朴基贊 車元軫 安德明 安鳳瀾 朴應九 李延篆 金之三 池聖 朴治湖 金秉鏞麟 正勳 朴桓進 李基赫 朴生弼 桂錫熙 金光明 許基榮 金仲鉉 金元昌 朴元初 李錫俊 金春得 裴天禧 高亨萬 劉炳鎭 李萩蔣女史 金泰彬 金允得 張基滿 梁斗杓 李元瑞 朴元玉 金正鎬 蔡東珏 蔡東成 蔡敬默 張膺龍 崔濟成 金奎昌 金尙徹 李洪基 李尙默 文宗善 崔允鼎 金宗源 鄭元燮 張晩梓 吳弼殷 金國英 各五圓(以下畧)

各地春繭賣買

◇春川 江原道春川郡農會에서 今春蠶繭共同販賣는 去六月十三日부터 七月四日外지 行한 바 其販賣成績은 如左하다는데 例年에 比하야 良好치 못하다고

△春繭共賣成績

等級	數量 石	價格 圓
特等	一、三四〇	三三、三九九〇
一等	八〇三六	一六〇、七〇六五
二等	六九八六	一三九、七三六〇
三等	一五八一四	八、四六九六〇
四等	四七六	三、五七四五〇
等外	三四三五	一、一〇三二〇
屑繭	九〇一四六	二、〇八六五〇
玉繭	一六〇	一、七七二〇
計	二、〇五五七〇	三九、五五〇〇〇

(春川)

◇陰城 忠北陰城에는 今年春蠶成績이 良好하야 生產高八百石에 達하얏는데 共同販賣의 成績을 보건대 昨年보다 減少된 바 그 原因은 昨年共同販賣의 不平이 잇섯슴을 因하야 豫想한 當業者는 預히 他方面에 多數販賣되엇다 하며 今年은 實로 好評裡에 終了되엿다는데 그 價格과 數量은 如左하다더라

最高 一〇圓二八錢
最低 五圓八十錢
數量 六三〇石
代金 四二、〇〇〇圓

◇漣安 忠北槐山郡農會에서는 春繭共同販賣를 會坪面乾繭場에서 去月十八日부터 二十七日外지 十日間에 完了하얏다는대 販賣數量及金額은 左와 如하다고 (漣安)

特等 一七七貫二六〇 一、七八四圓一八〇 一等 九七九圓八二〇 三等 一、〇七一三六九四一六貫二六〇 八、九五圓六八〇 四等 四六三圓〇〇 等外二三、一〇九圓七九〇 一、一〇八二貫二九〇 下繭 一七一二三二〇 二 四三三圓九七〇 計三、五〇 二貫五五〇 二八、五五一圓 七八〇

◇楊市 龍川郡農會에서는 春繭賣買를 開始하얏다는 바 時日場所及等級과 價格는 如左하다더라

時日 七月二日로 九日外지
場所 楊下面事務所
特等八圓四十錢 一等八圓 二等七圓六十錢 三等六圓九十錢 四等六圓 最下二圓四十錢(楊市)

地方經濟

元山港橫斷貿易

지난 六月中의 元山港對橫斷航路貿易은 移出總額二十四萬九千五百五十八圓 移入總額五萬七千五百十三圓인데 此의 內譯은 移出에서 敦賀線二十一萬一千七百七十一圓 伏木線六千四百五十五圓 此를 前月에 比하면 移出十二萬一千六百十六圓 移入二萬一千六百五十一圓이 共히 減少하얏다 主要移出入品을 示하면 左와 갓다

△移出品
(敦賀線) 玄米二七〇二石八六四五六圓 精米八九二六石七三一八圓 大豆一七六〇石三〇八〇圓 鹽魚一〇一〇〇斤二八八圓 牛六五頭五三〇〇圓 木炭一〇九〇擔三二六七圓 挽材一五八〇立方八二四五〇圓 豆粕肥料一四五〇擔六〇〇〇圓 鯟肥料五六三擔七〇八圓 其他
(伏木線) 大豆一三一三石二五三五六圓 鹽魚一三〇〇斤二六〇圓 木炭一二擔六六圓 原木一三〇〇立方尺一二〇〇圓 魚粕肥料六三〇擔五三五圓 金屬製品一五〇〇圓
△移入品
(敦賀線) 麥酒七七九三리트루三六二五圓 生果二〇七四三斤三二四五圓 顏料及塗料一五〇〇圓 漁網七三〇〇斤一一五一四圓 帽子一七一一圓 陶磁器五七一四圓 機械類一九五〇圓 竹製品一四一〇圓 其他 (伏木線) 菓子一三〇〇圓 化石灰五一九五〇斤三四〇八圓 其他(元山)

◇庭球選手歡迎會 元山庭球界의 選手有志와 元山各學校運動部主任等의 發起로 今般本社運動部의 派遣에 依하야 庭球『코-트』를 行코저 來元한 斯界의 明星인 黃明源氏歡迎會를 去九日午後九時부터 元山府上里一洞海東軒에서 金相翊氏의 開會로 開會하고 光明學校運動部主任高景錫氏의 歡迎辭와 黃明源氏의 懇曲한 答辭가 잇슨 後 宴席에 移하야 主客間十分歡娛하얏다고(元山)

其他漁獲도盛況

鰱、메레치等의 元山漁況은 四五日前外지 元山海冲麗島로부터 江原道通川方面及元山灣內에서 漁獲되는 것이 지난 六日부터 七月八日에는 永興虎島方面을 中心으로 漁獲이 意外에 만앗섯다는데 虎島에는 角網과 曳地網으로 鰱、메레치其他의 漁獲을 行하얏스나 今年은 延繩의 成績이 非常히 良好하야 目下出漁數十隻內外이나 一日漁獲高가 每隻四十圓으로 七十圓이라는 바 二三名의 乘組員인 漁船의 收獲으로는 成績이 良好하다 하며 다구나 今年은 年末로 形姿가 보이지 안든 메레치의 漁獲도 相當하다더라(元山)

◇龜尾衡平臨時大會 善山郡龜尾衡平分社에서는 來十五日同分社內에서 第一回臨時大會를 開催한다는데 郡內各地에 散在하야 잇는 同分社員은 勿論이며 여러 同志들도 多數히 參來하기를 바란다고(龜尾)

古同魚漁業

最盛期를當한 元山近海漁場 漁船出沒盛況

元山近海에 對한 古同魚漁業은 近日이 最盛期가 되야 日本으로부터도 巾着網業이 元山에 出動하야 漁獲에 從事하는 바 其漁獲物은 運搬船에 積載하야 即時日本下關으로 回送함으로 元山市場에 水揚은 近히 小數이라 하나 如何間今年의 古同魚는 昨年보다도 魚群이 濃厚하야 元山附近의 漁村은 當지 潤澤을 呈하는 中이라 하며 朝鮮漁船의 出動數는 約七十餘隻이고 漁場은 마치 戰爭場과 가튼 狀態라고(元山)

第貳回平安庭球大會

時日 七月二十八日二十九日兩日(雨天順延)
場所 白馬公普校
申請期日 七月二十七日外지
申請場所 白馬俱樂部
抽籤期日 七月二十八日午前十時
參加金 少年團 靑年團
賞品 各團優勝旗及附賞金
主催 白馬俱樂部、白馬公普校友會
後援 朝鮮日報白馬支局

◇寸鐵◇

◇【全州】全州警察當局에서는 다시 紛糾事件發生을 念慮하야 當局府市民大會를 禁止하엿다고 紛糾의 解決의 會議는 못본 모양

◇【漆安】五日下午五時頃漆安公立普通學校敎室에서는 男女數十人이 會合하야 狂歌亂舞! 後女樂前生師孔子의 風이냐? 現代는 容恕안는 일!

◇【新義州】府內各廳에는 稅金未納으로 差押當하는 사람이 不知其數다고 百姓이 부지못하면 稅源이 涸渇되지!

社告

今般本支局外務員貢珠穰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얏기로 本支局과는 一切關係가 無하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長連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照亮하소서
記者 趙秀雄
朝鮮日報橫城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駐新溪) 朴仁淳
記者(駐助浦) 朴承昶
朝鮮日報南川支局 白

照亮하소서
顧問 金基玉
顧問 金豐根
顧問 康晥東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駐金城) 高墩翊
朝鮮日報金化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照亮하소서
記者 李東龍
朝鮮日報洪城支局 白

今般本支局記者吳永湖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抱川支局 白

今般本支局總務張鳳燮氏는 總務의 任을 辭任하고 記者로 任用하얏사오며 金貞洲氏는 總務로 任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沙里院支局 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July. 10th, 1926.

WHAT'S WRONG WITH THE UNITED STATES?

By L. Y.

X

It is because the Pacific has become the world's centre and that the shores of America are washed by its waters that the writer has stathe matters frankly. Americans abroad and at home are the biggest factors in creating a world around the Pacific for good or bad. Are they going to be "Lincolns" or "Decaturs"? The spirit that prompted Lincoln to free the slaves and which stands for the best that is in America cannot be reconciled with the spirit that animates the United States to-day. The country which boats a higher percentage of church membership than any other, and where woman has undisputed sway in their own clubs, and other organizations, shculd have a better secord than what the United Staaes is to-day. One of America's most prominent judges stated the other day that it is a conservative estimate that there are 100,000 murderers in the States who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What is wrong when as a result of the recent exposure it was found that practically the entire milk supply system of New York City was run by dishonest and corrupt officials who thought nothing of adulterating milk, and doing such incalculable harm to the child life of the community as would earn for them the title of inhuman monsters?

英文欄

米國印象 (十)

樂聖을마지한昨夜의光景
幽玄한旋律에聽衆心醉
수업시모혀든내외국인신사숙녀 모다그연주에최후까지심취하여
本社主催의樂聖歡迎音樂

만도(滿都) 내외국인사들이 손곱아 기다리든본사주최의 악성『파울、고발도브』씨 피아노독주회는 예뎡과가티 구일밤에 경성공회당에서 개최되엿섯다 이날에 남바아라사가나흔 위대한 예술가요 악성(樂聖)으로그일홈이세계악단(世界樂壇)에드날리는『고발도브』씨의독특한피아노연주를한번드르려고뎡각전부터 모혀드는 내외국인

신사숙녀 (紳士淑女)는 뎡각인오후여덜시경이되자넓은공회당이 거의차도록고급음악회로는보기드물만치상당히다수한수효의인사가모혀섯다뎡각보다삼십분아느지오후여덜시반이되여서본사편집국장(編輯局長)민태완(閔泰瑗)씨가 단에 올러간단이『고발도브』씨를 소개하고나자 기다리고잇든것가티 환영의 박수성(拍手聲)이장중속에서쏘다저나왓다 이리하야 연주가시작되여『빠하』작곡의반음계뎍환상곡(半音階的幻想曲)과『푸게』가연주되니 만장은 죽은듯이고요한가온대 오즉 피아노의『멜로듸』

혹은놉히 혹은나치、혹은굵엇다 가늘엇다하는 음조(音調)를따러 허공으로 울려와서청중을 유현한환상의 나라로 쓰을고드러가는듯하엿다이가티긴장한가운대에 연주의한 곡조가끗이나면 우는덤을 깨트리는듯한요란한 박수소리가 장내를흔들엇다 『고발도브』씨는 순서를따러 약간쉬엿든 흔적이나과히피곤한빗도업시피아노건반(鍵盤)우에서 춤추는손이 잠시쉬일새업시 원긔조케 계속연주하야일부、이부와 마즈막삼부까지를마치고나니 시간은 열시가훨신넘엇섯다 마즈막『와그너-』의 작곡『리스트』편곡『탄호이서-』의서곡(序曲)이끗이나매 이에심취하엿든 청중들이 수삼차재청하야『고발도브』씨는 또다시 피아노건반우에 손을노아 한곡조를연주하엿다 이가티하야 우리악단에 영원히 긔억될『악성고발도브씨 피아노 독주회』는 내외국인상찬중에 무사원만히 마치게되니 본사의자랑이 이에넘칠바업게되엿더라

京城에潛入한 故大杉榮의同志
주의선전차로조선에와서 본뎡경찰서의주목을바더

시내본뎡경찰서고등계(市內本町署高等係)에서는 구일오전여섯시경에 돌연히수명의형사대가 시내북미창뎡애지려관(北米倉町愛知旅館)에이르러 그곳에묵고잇는비누장사목원조웅(木原照雄)(三)을 발견하고엄중한감시를하는중이라는데 그는대삼영(大杉榮)의동지로조선에온후긘긔와가티비누상사모양으로도라다니며주의를선뎐하는것이라더라

엇더한洪水라도 通信은無慮하다
톄신국에서미리완전한 계획으로준비를마첫다
有線、無線으로內外聯絡

작년여름희유의 대홍수로 한강(漢江)일대의 륙상선 (陸上線)이 거의전부귄멸되어서겨우 룡산무선뎐신(龍山無線電信)으로 내외각디에 뎡보를전한 신산한경험을가진 톄신국(遞信局)에서는 여러가지로 안전책을강구한결과 한강수뎌선(水底線)매몰공사를 완전하엿는데 홍수긔가점점박두하여옴으로경긔도경찰부에서는 수해유큐책에 대하야 톄신국(遞信局)과텰도국(鐵道局) 기타수해에 즉접 관계가잇는각관텽의출석을구하야팔일오후에경찰부에서련합회의를열고협의한바잇섯다 톄신국의 계획으로는 륙상선을 수뎌선으로도 사용하야 유선통신으로 련락하기에전력하되 그래도 만일장애가생기는때에는 무선 뎐신으로와공중통신(空中通信)련락을도모할터이며 그리고 최후수단으로는단파장무뎐통신 (短波長無電通信) 을결행할것등삼단방책으로 내외통신의 안전을긔하기로하엿는데 만일의 경우에는홍수예보디(豫報地)인가평(加平) 려주(驪州)춘천(春川)은수뎌선을 우회선(迂回線)으로 사용하기로 하엿고통신접촉디인 부산(釜山)진해(鎭海)목포(木浦)금택(金澤)동경(東京)등각디에는 무선뎐신으로통신연락하기로하엿다더라

崔鉉의判決은 또다시무긔연긔

긔보=『카라한』의밀사라는혐의로 금년이월에 교묘히조선내디에침입하야 각디로 활동하다가 해주경찰서(海州警察署)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손에데포되야 해주디방법원에서검사로부터징역일년의구형을바든최현(崔鉉)에게경판사(鏡判事)로부터언도코저하엿스나 더욱 엄밀히 묘사할필요가잇다하야드듸여판결을 무긔연긔(無期延期)하엿다는바 사회에서는 그가카라한의밀사운운하는니만큼 사건의 뎐개를매우주목중이라더라(해주)

安興校의紛糾
학교재산문데로

안변군 안도면중평리(安邊郡安道面中平里)에잇는안흥학교(安興學校)에서는설립자인 리병재(李炳宰)씨이하회계책임자의처리하든문부상원장(元帳)에는과일된금액이 세입에는 긔입치안은고로 신설립자 김유농(金裕農)씨등이 문부를 묘사하엿든바도저히 요령을알수업는 동시에문부상 상위되는금액이 천원여원에달함으로 부득이 개인으로는처리못할것이라하야 오는 일요일에 학무위원급 평의원회를소집하고 일변문부를 묘사하는동시 대책을강구하리라는데 면민일반은 이에대하야 크게비난하는동시에 각학교 재산으로말미아마 삼사차여론이 자심한데도불구하고 감독관텽인 군당국의태도는 전부이를 묵인함으로써는 개인을위함이 아닌가하야이옥분개한다더라(원산)

許時模聲討講演
馬山四團體聯合으로
강연회를개최하야대성황 결의문을순안으로보낸다

허시모만행사건에대하야 마산청년련합회(馬山青年聯合會)마산로동회(馬山勞働會)마산혜성사(馬山彗星社)마산소년소녀련합회(馬山少年少女聯合會)사단톄주최로 지난칠일 하오팔시에마산구락부회관에서 성토회를개최하고 아래와가튼 연뎨로연설을한다음에 대책방침은 주최측에일임하여결의케하엿다는데 그결의문은다음과갓다더라

◇演士及演題
許時模의蠻行眞相 金明奎君
동무의蠻行當할줄둑고 李太圭君
少年少女가咀呪하는社會相 金宗信君
現代宗教家의假面 呂海君

◇決議文
一、許時模는人道上으로容恕할수업는犯罪嫌疑者이라解任식혀審判케할事
二、被害者와一般社會에謝罪케할事
三、被害者에게相當한慰藉料를支拂케할事
右를順安安息教會敎役者會와同病院委員會에致送하야實行을促할事

『日本地震은 一個月繼續』
이태리디진학자예언

『이태리』의 유명한 디진학자(地震學者)『멘단지』교수는말하되 일본과구주(歐洲)남동(南東)부에는 불원간디진이잇슬터이라는바『자바』『스마도라』『칼포로니야』『일본(日本)』등디에잇는최근의 디진은 칠월륙일로부터 약일개월에긍하야 계속될듯하야 그만동안 그중에엇더한곳은일본과 구주 남동부에맛츨니라고 하엿다더라

一年間苦海의犧牲者
勿驚！千七百의多數
삼십세미만이수위로사백구십인 자살방법은목매죽은것이다수다
二八少年만四十名

불쌋가른 인생의 쟁투에또다시 생존경쟁이 거듭하야생활고는각일각으로 사람의 가슴을눌는다 금년에 일으러서는 한강인도교에죽엄의 패림을엇고저 슬음업시거러드는 사람들을 만류코저 여러가지 수단방법으로 그머책을강구하는등 자살예방에 여간힘을 쓰지안는중이로대 해가거듭할사록 그수효는 점점늘어갈뿐이다 이에작년일년중의 자살자수효는 일천륙백칠십인이라는놀란수자를보엿다는데 이들자살자의 원인은 물론생활난을 참지못한자가가장만흐며 고칠수업는 병고를리이지못한자와 정신 착란이 그다음이을지엇스며 가뎡불화영업에실패바탕의짐과혹은주어서밧지못한청을텬정으로말미암아 아릿다운 청춘을 오히려앗거워하지안는일이또한적지안헛다한다 지금자살자들의 취한방법은 죽음림시에 가장고통이 적은액사(縊死)가다수를보이고、투신、독약、칼、텰차등자살이그다음이되엿스며 그다음 그들의나히의 통계를들면 가장인생의 열정이 풍부할이십에서삼십세까지의 다수를뎜령하엿지만한심할손! 십오륙세의 소년들이 사십일명에달한 현상이 우리의목긔에던개되엿다 이제금년삼월까지 자살자의년령별을보면다음과갓다

十六歲未滿	四十一人
二十歲未滿	百八十九人
三十歲未滿	四百九十四人
四十歲未滿	三百六十一人
五十歲未滿	二百八十三人
六十歲未滿	二百五十二人
七十歲未滿	百七十七人
七十歲以上	七十四人

技競運動
軍陵廣의常勝
8對6으로鐵道軍에敗

京日主催의廣陵對鐵道野球戰은 八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京城運動場에서松島球審判鐵道先攻으로展開된바投手戰을演出하야八對六으로常勝軍인廣陵軍이惜敗하니때는午後七時半이엇더라

廣陵			鐵道
	31	打數	38
	12	三振	1
牧野	3	四球	3	三 神田
武智	2	死球	0	中 丸中
戶田	3	安打	9	左 鈴木
吉岡	1	二打	0	一 池內
谷原	0	三打	2	右 角谷
山城	1	犧打	1	捕 中村
三浦	6	盜壘	1	遊 川關
田岡	6	失策	3	投 高橋
中尾	6	得點	8	二 土野

得點 鐵 201500000＝8
得點 廣 020000040＝6

東京基督跳團 (合宿雜記)

中花形인尹宗楠君을主將으로한同團은東京市外戶山原附近에合宿하고每日炎天風雨를不顧하며新戰法作成練習에勞心焦思中이다攻擊을早大帝大法으로守備를高師體操法으로組合한同團獨特의戰法이라體力과部員多數의點으로對京城平壤戰에도必勝을期한다至今까지의戰績을概觀할진대六月二日東京大學리그戰에優勝한帝大를四對二로擊破하얏스며六月九日에는日本中等學校優勝校인豊島師範을一對一의『스코어』로終始壓迫하는等無人之境을踏破하는感이不無하다
【一選手記】

鐵道軍歸京

大連撫順長春哈爾濱奉天等各地에轉戰하야三勝三敗의成績을남긴鐵道局野球部選手一行은五日朝歸京

武裝한五名이
龜城에出現
군자금을안내인다고 주인을총살후에방화

지난칠일에 평북귀성군관서면남북송동(平北龜城郡舘西面南北松洞) 원석찬 (元錫贊)의집에무장(武裝)한 조선인오명이 침입하야 집에는방화하고 원석찬은총살하여버렷다는데 이제그사실내용을듯건대 그들은군자금을 청구하엿스나 원석찬은 그에불응하엿든닭에 그와가티총살한후 어대로종적을감추엇든것이라는데 당디경찰측에서는 방금그들을수색중이라더라(신시)

家宅搜索後 三氏를檢擧送致
순텬디방법원검사국으로

지난달중순에순텬(順天)경찰서에서는 순텬로동(勞働)농민(農民)두회관을 돌연히 대수색하고 약간의격문서를 압수하여 갓섯는데 전긔 회관을수색하는때에 로동대회위원김긔수(金基洙)씨는 그격문이 자긔에게서 발각되엿슴으로 그당시로 자취를 감추어버렷스며 그후멧칠후에 경찰은또다시 농민련합회위원박병두(朴炳斗)리영민 (李榮珉) 리창수(李昌洙)삼씨의가택을 수색하는동시에 동삼씨를검거하야광주디방법원순텬지청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 더라(순텬)

◇…◇…◇…睡蓮…◇…◇…◇

李王職女官
聯袂辭職說
리왕뎐하께서도라오시면 淘汰를難免이라고

창덕궁녀관일청(昌德宮女官一淸)을중심으로한팔십여의녀관은지난달이십칠일에시내계동(市內桂洞)모처에 회합하야밀의를하엿다는데 이제그에 대한내용을드르면 리왕뎐하(李王殿下)께서 동경으로부터 도라오시면 필연코 리왕직내에큰정리가잇슬것이오 정리가잇슬때라는풍문이 자자한바 순종께서승하하신이후 여러가지로 신경이예민하게된녀관들은 당하는이보다 차라리 미리사직원을 데출하야압날의 창피를면하는동시에 약간의은사금(恩賜金)을요구하자고협의를 거듭한것이라더라

多少整理는事實
연메사직설은허전이라고
(李王職當局者談)

지난달이십칠일 창덕궁녀관구명의 연명으로 퇴관서(退官書)를 데출하엿다는것은별항보도와가티 엇더한니와이에대하야리왕직(李王職)당국자는말하되 『녀관들이 퇴관서를데출한사실도업고 또그러한말도 듯지못하엿습니다 다만지난달 삼십일에빈뎐회(殯殿會)?뎐에잇는녀관이 사직서를 데출한사실은잇습니다 례년이맘때가되면 녀관의이동이잇서 새로녀관이되는사람과 퇴직하는사람이 상당히만흠으로도 그런소문이 생겻는가생각됨니다 금년에도 례년에의하야 녀관의 이동으로 다소인원정리(整理)가잇슬것은 사실이오 녀관이결속퇴직하엿다는것은 밋지못할 말이외다』하며 여러말을하지안는데 불원간 실현될녀관이동 당시에다소간인원의 정리가잇슬것은 사실인듯하며 현재녀관의 총수는륙십명이라더라

恐喝로廿年懲役
징역을살고나오기만하면은 또공갈을하야다시텰창생활

일본신호시오처통(神戸市吾妻通)이정목에사는 중뎐우일(宮田宇一)(四六)이라는자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전에신호영정(神戶榮町)에서 운송업하는 이평(伊平)(四三)이란사람을공갈하야 명치사십삼년에 징역사개년을바다가지고 대정사년에 출옥하게되자 그길로다시 긔여히이평에게머하야 네가나를 감옥에까지보낸것은 심히 고약한일이라하며 또공갈을한죄로 다시륙개년징역에 처하엿다가 대정구년에출옥하야 또다시 이평을공갈하야 사백원을 편취하고그후니어서 십수회에향하야 일만일천여원을 편취하게되야 이와가티긍년에게 공갈을당한 이평은나종에는할수업시 무뎐외길(武田外吉)(五三)이란사람에게 자긔의상뎜을맛기고 자긔는 행방을감추엇든바 이제그총독한 중뎐이란자는 또다시 무뎐외게대하야이평의 주소를발려주지 안흐라면돈을쉬이라고하야 작년이월부터 금년일월까지에 일만여원을편취한일이잇고또다른두명을공갈하야 삼천칠백원을 편취한사실이또발각되여지난팔일에극형(極刑)십개년의처분을바덧다는데 이와가티 전후삼십회에이십년징역처분을바든자는일본에서처음잇는일이라더라(대판)

捕狐藥으로
소를죽이고서 경찰의취됴바더

경긔도양평군 수곡리(京畿道楊平郡水谷里)에사는청재달(成在遜)(六)는여호잡는약으로 소를잡는사실이 발각되여 지난칠일 양평경찰서에 구금되여 방금엄중취됴중 이라는데 그는금년일월중순경에 광주군퇴촌면(廣州郡退村面)에사는 행상(行商)홍모(洪某)가 여호잡는 약을가지고와서 말하기를 여호를잡어팔매하야 반분하자 함으로 청재달은 이말에 동의승락하고 그동리사는 장모와가티 여호를 잡으려고 긔제면공동묘디(機提面共同墓地)인 수곡리(水谷里) 국수간 동행하든길가 솔숲에배치하얏든바 마츰 지나가든장사하는 사람의소가 풀을뜻다가이약을 깨물어서 소는그곳에서 약이 파렬하야죽엇슴으로소임자는 청재달에게 소갑을청구하야 소는소대로주고 그우에돈십원을주어 원만히 해결되엿든것이 우음누사히 지내오다가경찰의눈에발각되게된것이라고(양평)

詐欺專門漢
여러가지말로 사긔해먹은자

평양부행뎡(幸町)사십일번디 김창운(金昌雲)(四○)과 약송뎡(若松町)일번디 량호준 (梁浩俊)(三○)은 직업난에 헤매는사람의 의뢰심을 리용하야 김사원(金士元)과 뎡동섭(鄭東燮) 두사람을 평양역긔관고 (平壤驛機關庫)에 주선하여준다고그 의뢰비용으로 김사원 에게서는 삼십원 뎡동섭에게서는 이십이원의 금권을 바다먹고하등주선이업섯고 그외에도 그와가튼수단으로 십삼명으로부터 다수한 금권을 사긔하여 먹엇스며또소위문화상회(文化商會)를연다하야 사긔의행동을 한일와만튼중 일긘평양경찰서의손에걸리어엄중한 취됴를 마치고지난팔일평양디방법원검사국으로송치되엿다더라(평양)

自轉車窃盜
인천서절도하고 평양와서데포되다

경긔도강화군 부내면월곳리(江華郡府內面月串里) 오백구십팔번디황인영(黃寅泳)은지난륙월이십사일경 인천부빈뎡(仁川府濱町)삼십이번디 재목상류군청(劉君靑)의자전거를절취하여가지고 평양에내려와 부내계리종로려관(鍾路旅館)에투숙하든바 지난삼일아침시경에 평양경찰서에 데포되어 방금엄중히취됴중이라더라(평양)

少年窃盜二名
홍성에서데포

충남홍성군장곡면 천태리(洪城郡天台里)엇던주뎜에서 지난륙월삼십일 하오일시경에 뎐소년두명이 행상모양으로 마포수십필을 지고와서 방매하라하매 그동리사람이 소년의언어동작이 수상함을보고 즉시본면주재소에 고발하얏는바 경관은즉시 현장에와서 한명은데포하엿스나 공범한명은 도주하얏다는데 그자세한말을듯건대 그소년들은 정갑진(鄭甲辰)(一九)과 김상봉(金上奉)(一六)의 두명으로 일뎡한 주소가업시 다니며 절도전문을하는자로 개성소년형무소 에서 일년륙개월의 형긔를 치럿다하며 두명은공모하야가지고 지난 이십구일밤에청양군 화성면시장(靑陽郡化城面)상뎜에침입하야 마포삼십필과 현금칠십여원을 절취하야가지고 긘긔주뎜에 가져다가 팔다가 행위가탄로되자 김상봉은즉시도주하고 정갑진은 그가티 홍성경찰서에서 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청양)

三兄弟가共謀한
强窃盜團公判
맛형에게는징역륙년 아우두명에게는오년

강원도양구군동면덕곡리(江原道楊口郡東面德谷里)조유삼(曹龍三)(三六)과그아우조원복(曹元福)(二五)조암희(曹岩熙)(二一) 세명은 강절도죄로 지난륙월춘천(春川)재판소에서조유삼은징역륙년、조원복 조암희는징역오년의 판결을밧고 즉시불복공소를 데긔하엿다는데 그범행을듯건대 우리형뎨삼인이 공모하고 일단이되여가지고 대정십삼년 음력구월어느날밤에 양구군동면 림당리(楊口郡東面林塘里)리덕재(李憲)의집에드러가서소금(食鹽)두말닷되와대정십오년삼월팔일오후열시경에 동면덕곡리팔십삼번디박주호(朴주浩)의집에서 백미 삼두를절취하고또 지난사월 삼구일 오전세시경에 동리 삼백삼십이번디김두현(金斗賢)의집에드러가서 노끈으로 김두현을 결박하고 칼로두현의 가족을 위협하며 강청하다가현금 이원과 삼배네필 반외세가지를강탈하고 또본월팔일오후네시경에 동면림당리뎡현수(鄭賢洙)의집창고에잇는백미칠두을절취하야 공모하야 탈취한외예십여곳에서 적도질을 감행하엿다더라(춘천)

電車傷人
평양시내에서 被害者重傷

지난팔일 오후아홉시경에 평양역에서 출발하야 시내로향하든리인덕(李仁德)(二三)운뎐의데십사호의 뎐차가 한창은행평양지뎜압해 다달엇슬때 문득윈편으로부터 뎐차에 뛰어오르든엇던청년이 그릇떨어지며뎐차에부듸처 두개골과여러곳에 중경상을 바덧슴으로 즉시 관서병원(關西病院)에 담아다가 응급수당을 하엿는데 부상자는평남 강동군 삼등면봉의리(江東郡三登面峰義里) 팔십번디 량대원(梁大元)(三○)이라는바술외취하야 그와가티 실수한것이라더라(평양)

阿片장이窃盜
평양서에데포

평양부내에는 지난 오월경부터륙월경까지 고무화 수선한다고인가에 들어와서는 물품을절취하야그절도범행이 전후십사회에나달하엿슴으로 평양 경찰서에서는 극력범인을 수사하든중얼마전에 드듸여 데포하엿다는데범인은평양부리문리(里門里)림영근(林永根)(四五)으로본시아편중독자이며 전과이범을 가진자이라더라(평양)

日人鐵道自殺

팔일아츰여덜시 십오분에 데사십일호렬차가 경부선귀포(龜浦)역을 출발하얏슬때에 돌연히 이십사오세가량의 일본인남자한명이 선로안으로 뛰여들어 자살을하얏는데 됴사한결과 그는일본산구현후협군 소야뎐사뎡(山口縣厚狹郡小野田寺町)에사는 하야신일(河野新一)(二四)로 판명되얏스나 원인은알수 업다고

『돈을더안줄터이면 내딸을내라』
결혼한지팔년이된 딸을내라고강청해
사위사랑못하는장인

지난륙일 오후팔시경에 경북김천군김천면 황금뎡(金泉郡金泉面黃金町)압 넓은길가에는다수한군중이모히여 중구난방으로 주고밧는말들은『풍속을 문란케하고 가장을 박대하는년은 동리에부치여두지안는것이올탄』또는 『그자가 못생기여서 그모양이지 그러코 뤼러코 말할것업시 그장인장모라던가 늙은것들이죽일것이지 그러나 이자는어며도갓단말인가 잇서야지 말이나하여 보지』의와가티 의론이분분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어보면 전긔그무른 비석돌 (碑石)집에는지금으로부터 약삼재월전에 김천군과곡면하강동(果谷面夏江洞)으로부터 젊은남녀두사람과 늙은내외가 어린아이를 다리고와서 음식뎜 영업을경영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야 지례면신평(知禮面新坪)에사는 리근칠(李根七)(三八)이 가감천면실도그집에와서주인을뎡하고난후부터는젊은남녀의사이가 멀어지기시작하야안해되는리일색(李一色)(二○)은 간부와 밤낫을 헤아리지안코 한자리에부터안저서 남편을본데도 아니하고 사갈가티 며칠을하야 밥도부여이나 들에서어더먹고 잠도낙의집 행당방이 아니면 한데잠을자게되던중에 그의장인되는리라고 청화가티 졸러대는고로 전긔 리금술이는 화도나고속도상하야 엇지할줄을 알지못하고 극장구경이나 단이는것이 일이엿섯다한다 이러한일을알게된 동리사람들은 자긔의일가티 분분하야 이녀자는동리에 부치여둘수가업스니 엇더한조처를 하기위하야 그가티모히엿섯는데 그날도역시 극장구경을가고 업던때이라하며 리금술은 분함을참지못하야 하는말이『내가이술장사를하게된동긔도우리장인장모가한사하고권하기를주식영업을하면놈파업마되지아니하야부자가될터이요 자긔는 고향에정하도될수가 잇다고하나 주식영업을하고자하는마음은 죽어도 업다고 거절하엿스나 날마다졸리여 견딜수가업슴으로 하는수업시 자긔의전답 얼마엿섯든것잇스니 뒤를보와주면 영업이잘될수가 잇다고하야 주식영업을 ...관동중에서 근삼백원을 주어것만 집도 삭음세에 들고아누것도 장만한것도업시 돈만더내라고 야단을하고 그러치아니하면 자긔딸을 이혼하여달다고야단이라하며 자긔처 리일색이는 자긔와동갑으로 열여덜살때에결혼을하야 이래 팔년간을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주지아니하고 이번에 주식영업을시작할림시하야그것도조건을부치여하여준것이라하며내외간에정도 남못지 안케지내여왓다는데 장차갈일이망연한그에게는금년생가지(加只)다는아들까지잇다더라(김천)

十四歲少女의自殺
유긔주고엿사먹고서 싀부모에게겨정들을가보아

충북음성군 금왕면금석리(忠北陰城郡金旺面金石里)리용흠(李容欽)의 맛며느리 설씨(薛氏)(一四)는 지난오일오후에 십사세를 뷔괴로 양잿물을마시고 자살하얏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전긔설씨는 칠세시에 민며느리로 드러와 지금은성례까지하야 귀염을바다오든바 근일에동리아이의꾀임에빠저 유긔(鍮器)를주고 엿(飴)을사서먹은 사실이잇섯는대 그사실이 발각되여장차 시부모에게 알게되겟슴으로 어린생각에 큰꾸지람을 들을가자겁하야 음독한것 이라더라(무극)

服役準備次로 暫時溫泉閑養
공산당사건의뎍권

일본공산당사건의 관계자인 변호사덕뎐구일(德田球一)은일심판결이 잇난다음 본년일월이후로 그행위를감추엇섯는데 팔일정오에 돌연재판소에 나타나서 복역의수속을 마치고 오후세시경에그동지인야판(野坂)서(西)시천(市川)케씨의전송을바드며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입감하얏슴으로써 이사건의 관계자는시천정일(市川正一)씨고망남(?殺明男)의방인을제한외에는 전부복역하게 되엿는바 입감전에 덕뎐은아래와가튼말을하엿더라 『복역하라면 상당한 준비를요하는까닭에 잠시 고향인록아도(鹿兒島)에 도라가서온천(溫泉)에두러누엇다온것인데 이만큼 살아잇스니가 한번가량의옥중생활은면려업을몰로안다』

犯人服役一年後에
連累者새로發見
달성군약수터의살인사건 일년후에연루자가잇다고
大邱署와檢事局活動

긔보=달성군 옥포면(達城郡玉浦面)비슬산약수(琵瑟山藥水)터에서살인사건이 이러나서 한참동안 세상을어지럽게하든 문뎨의범인성문호(成文鎬)는 데포되여심리중 탈주(脫走)하야 충남옥천 (忠南沃川)방면에 잠복한것을다시데포하야 대구디방법원에서 징역십오년(懲役十五年)에처하야현재대구형무소에 복역하고 일년이갓가운오날에이르러다시 전긔사건의 진범인 성문호외에련루자가 벌모히 삼인이잇다는증거를어덧슴으로 지난팔일 오후부터대구경찰서와대구디방법원 검사국에서는 활동을 시작하야 금번증거물의단서는 전긔 사살현장에서약복 정보가량밧게 조선두루막이한벌과 와이사쓰와 저고리와양말과 양말단임 ~가지가 현장에잇섯든바 그것이 전긔문호의것이아닌사실이판명되여련루자가 따로잇다고 단뎡된것이라더라(대구)

鐵道自殺
(호남선리)

리본뎡(湖南線里本町)에사는 양군필(梁君必)(二六)은지난삼일오후열두시반 전북경편(全北輕鐵)궤도우에서자살 하엿다는데 이제 그사실을 드러보면전긔양군필은 자긔의첩(妾)문데로 자긔모친과 말다툼을하고 그길로바로 경편털노궤도우에가 누엇다가갈려죽은것이라더라(리리)

馬賊銃殺
안동현의극장에서 잡힌다젹단을총살

긔보=지난 사월밤에 안동현(安東縣)삼번동(三番通)팔뎡목에잇는 중국인극장(劇場) 영락원(永樂園)에서구경하고잇든마적(馬賊)이십여명 "이 일중(日中)관헌이 련락하야 데포키위하야 권긔극락원을 포위공격 하다가 피차에 교전하야 중국인관객(觀客) 두명을 즉사케한 참사는이미보도하얏거니와 그후 그들의남어지 마적이오룡배온천(五龍背溫泉)에 두목(頭目)털룡(鐵龍)과함께잡복하얏다가관헌의추격이 잇슴가하야 종적을감추엇다는데 관헌들은 칠일까지수사를 계속하다가 팔일아츰에디잡지도 못하고 돌아왓다하며 그때에 데포된다섯명의 다져은불원간안동양장(安東刑場)에서총살(銃殺)되리라더라

女囚姦通한
看守免職
신의주형무소

긔보=녀수인(女囚人)을간통하야 임태하고 행방불명이된신의주형무소(新義州刑務所)간수장박성렬(朴成烈)은문관보통징계령(文官普通懲戒令)에의지하야 면직처분을하엿더라

團體消息

◇京城靑年委員會 시내재동(齋洞)에잇는경성청년회(京城靑年會)에서는 오래동안집회금지를당하야 오든중 지난칠일에겨우 즉행위원의집회 해금이되야 십일오후팔시에 그회관에서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연다고

◇少年軍臨時總會 시내중림동(中林洞)에잇는소년군(少年軍)본영에서는 지난칠일에 림시총회를열고 다음과가튼 임원개선이잇섯다고
▲隊長張德彬▲幹事南廷臺▲班長徐銀童▲書記金漢龍

휘파람

▲수원경찰서에서는 지난칠일부터부랑자 청결시작을하엿는데 첫그물에아홉명이나 걸리엇다든가▲료리집만코기생집만흔남수리▲골목이인케는 좀조용하여지더는지▲그러나정말 부랑자는돌정돌정남은모양인대 좀체로걸리지는 안는모양▲그중에는 수원일류부호리모(李某)의둘재아들도 잇섯다고 부랑인대 돈냥이나 랑비한자식이라고 부자가 봉상견한 까닭에더욱 부랑자노릇을하게되는바 이를 부랑자로 취데케까지된것은 아비의 죄라고하는이도잇다▲과연그것이 아비의 죄인지 또는 본인의 죄일는지 자식의죄인지